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7월 23일(목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국, TPP 발효시 일본 자동차 수입 부품 50% 이상 관세 철폐
- 2) 미 증시 위협하는 최대 악재 '성장둔화'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일본 무역수지, 3개월째 적자에도 수출은 급증
- 2) 소프트뱅크, 외화채권 5천3백억엔어치 발행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중국, 한·일·EU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
- 2) 월마트, 중국 전자상거래 벤처 '이하오덴' 자회사화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미국, TPP 발효시 일본 자동차 수입 부품 50% 이상 관세 철폐

- 지난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TPP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차 배기가스 필터 등 미국 업체에 타격이 작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
 - 이는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50% 이상에 해당
- 관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 2조엔 규모로 현행 2.5%의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500억엔의 수출액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
 -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을 약 100개 품목에 이르고 자동차 이외에도 사용되는 관련 부품을 포함하면 모두 300개 품목
- 한편, 미국과 일본은 양자협약에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10년 안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은 쟁점인 쌀 무관세 수입 문제와 묶어 이달 말 열릴 각료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을 목표

2) 미 증시 위협하는 최대 악재 ‘성장둔화’

- 지난 20일 CNN머니는 미국의 성장둔화 우려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미 증시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경고
 - 이는 그리스 사태 일단락과 기업 실적 호조로 이날 미 뉴욕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S&P500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

- CNN머니는 이처럼 미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‘공격당할 여지가 없는’ 시장은 아니라며 미 주식시장의 최대 위협요소로 미 성장둔화를 지적
 - 미국의 6월 판매 소매 판매가 예상 외로 부진했던 것이 예시
-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미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으며 달러강세, 지정학적 우려, 미 증시 과열 가능성도 언급됨
- 한편, 강세장이 실물 경제를 앞서 가면 증시의 ‘버블 공포’가 또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일본 무역수지, 3개월째 적자에도 수출은 급증

- 지난 23일 일본 재무성은 일본의 무역수지가 전망과 달리 3개월 째 적자 행보를 지속했지만 수출이 크게 증가해 경제성장에 호재로 관측되고 있다고 발표
- 6월 수출은 전년대비 9.5% 증가한 6조 5057억엔을 기록 하여 시장 전망치 10% 증가를 하회, 하지만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폭
 - 수입은 6조5748억엔으로 전년대비 2.9% 감소해 전망치 4.3% 감소를 하회
- 한편, BOJ는 올해 회계연도(내년 3월 종료)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%에서 1.7%로 하향 조정

2) 소프트뱅크, 외화채권 5천3백억엔어치 발행

- 지난 23일 일본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가 총 5천3백억엔 규모의 외화표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

- 이는 일본 기업이 한 번에 발행하는 외채로는 사상 최대 수준
- o 이날 소프트뱅크는 미 달러화표시 7년물, 10년물 채권과 유로화표시 7년물, 10년물, 12년물 등 총 다섯 종류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 밝힘
- 발행 예정일은 28일로 유럽 및 아시아에서 미국 외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방침
- o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이전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충당에 쓰일 예정으로, 글로벌 저금리기조에서 만기가 긴 자금을 대규모로 확보하겠다는 방침
- o 한편, 신용평가사 S&P는 이번 발행될 채권들의 신용등급을 ‘BB+’로 평가했으며 이는 투자비적격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중국, 한·일·EU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

- o 지난 23일 중국의 한 언론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국이 한국과 일본, 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
- o 중국 상무부는 3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강판이 중국 강판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발표
- 이번 결정은 앞서 EU가 지난 5월 중국을 비롯해 일본, 러시아, 한국, 미국산 방향성 전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후 이들 국가의 수입 전기강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조치

- 한편, 당시 조치로 비오산철강, 우한철강 등 중국업체에게 29.7%, 일본업체인 JFE스틸, 신인철에 각각 34.2%, 35.9%의 관세가 매겨졌으며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에게는 22.8%의 관세가 부과

2) 월마트, 중국 전자상거래 벤처 ‘이하오덴’ 자회사화

- 지난 23일 WSJ는 미국 월마트가 중국 전자상거래 합작하인 이하오덴 1호점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고 발표
 - 월마트는 중국에서 온라인, 모바일 등을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
- 또한, 월마트는 이하오덴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, 고객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서 받거나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
- 한편, 월마트의 이하오덴 지분율은 당초 51%였음